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Establishing Alternative Material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김 신 영 (Sin-Young Kim)**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대체자료 수집·제작 현황 분석	V. 제언 및 결론
III. 전문가 면담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 및 수집과 관련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개선 방향과 실행 전략을 검토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독립 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중심 역할을 넘어, 장애인 이용자와 장애 관련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 및 학술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전문 국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수집한 대체자료를 장애 유형과 주제별로 분석하여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5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에 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인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자료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장서관리정책, 장애인, 대체자료, 전문가 면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NLD) in Korea regarding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users with various disabilities. Since it was elevated to a primary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June 2020, the NLD has been preparing to construct an independent building. As a result, the NLD needs to expand its role beyond its traditional function of producing disability-specific alternative materials and develop into a specialized national library that comprehensively collec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ular and academic materials useful not only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to researchers in disability-related fields. The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alternative materials produced and acquired by the library to date, categorizing them by disability type and subject area to identify existing limitations and challenge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were conducted to gathe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developing alternative materials to address gaps in access to and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ask for the NLD in strengthening library services for disabled users.

KEYWORDS: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Library Materials on the Disabl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Disabled Person, Alternative Materials, Expert Interview

* 본 연구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관리정책 개정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nyoung@daegu.ac.kr / ISNI 0000 0004 7390 3462)

• 논문접수: 2025년 11월 25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7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69-98,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4.202512.69>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출범하였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후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승격되었으며,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6685호)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4일 자료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난 변천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정책결정자들의 대응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차별 내지 소외를 바로잡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었다.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향후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는 조직 구성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IFLA, 2024)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지침(Guidelines for Making Librari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장벽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장애유형별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5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정책목표와 12개 핵심과제로 구체화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중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확대 및 품질 제고, 장애유형별 서비스 및 독서 편의 강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적 장치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은 물론이며, 장애인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러한 포괄적 자료 수집 노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수집·보존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위적 및 조직적 역량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 수집과 제작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연간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보급하고 있는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독서장애인 중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환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도서관 이용통계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가 장애인 정책도서관, 전국 도서관 및 교육학술기관 등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구심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대표하는 창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급선무인 대체자료 제작 확충을 위한 개선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수집한 대체자료의 유형별·주제별 심층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겸직) 및 특수교육학과 교수, 대체자료 제작·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협회·기관, 도서관 담당자 등 전문가 집단과 면담을 통해 대체자료 수집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인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자료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학술서,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원,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등 이론적 정보와 관련 자료, 국내외 출판동향 및 장애인 관련 자료의 생산·유통 현황 자료, 장애인의 정보요구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기초를 반영하되, 독립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대체자료 개발 정책 수립 및 전략 제시에 방점을 두었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장애인지원센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 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2024년 8월)까지 제작·수집한 대체자료를 수집 방법별, 유형(매체) 별, 주제별로 정밀 분석하고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인 교육 혹은 관련 연구 수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나 전략을 도출하자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 건립 이후 본격화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정업무인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확충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과 장애인 연구자, 이해관계자 집단을 최대한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주제 다양화,

유형(매체) 별 다각화, 학술연구용 자료와 소급자료 제작 등과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으로 존속하면서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으며 그 실천 전략으로 대체자료 확충 방안(Yoon & Kim, 2011)과 대체자료 중심의 장서관리정책 수립(윤희윤, 김신영, 2013)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 개발과 서비스에 집중되었다(서혜란, 강은영, 2015; 오선경, 2017; 황신애, 이승민, 2020).

또한 국가도서관 차원에서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한 연구로는 백록담과 김유승(2016)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강성구와 임경원(2017)은 대체자료 제작, 대체자료 연구·교육, 대체자료 정보망 운영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자료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김영일(2020)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사립 장애인도서관이나 공립 공공도서관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닌 장애인도서관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 핵심은 대체자료 제작과 정보기술 개발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김신영과 박옥남(2023)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장애인 자료의 범주를 장애인용 일반(대중)자료와 대체자료,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학술·연구자료로 확대·정의하고, 학교·대학·정부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장애인자료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교육훈련, 지원협력에 앞서 장애인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지금까지 장애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 차원의 장애인 대체자료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여러 현실적 입장 때문에 시각장애인 중심의 대체자료 개발 연구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대체자료의 유형별·주제별 편중이 심하고 서비스 제공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독립한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I. 대체자료 수집·제작 현황 분석¹⁾

1. 일반 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한 대체자료는 총 104,845건이며, 수집 방법별로는 제작이 88,781건(8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증 9,368건(8.9%), 구입 6,692건(6.4%) 순이다. 수집한 대체자료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문학(34.6%)과 사회과학(26.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술과학(6.5%), 종교(6.0%), 예술(6.0%), 철학(5.9%), 역사(4.4%), 언어(4.2%), 총류(3.7%), 자연과학(2.4%) 순이다. 문학과 사회과학은 수집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일반자료 출판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행태 및 선호도를 반영한 '이용자맞춤형' 제작 방식에 따라 개인 이용자 및 장애인도서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작 의뢰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연과학 분야는 제작과 구입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예술 분야는 제작(5.2%)과 구입(1.9%)을 통한 수집 비중은 낮지만, 수증을 통한 수집이 15.7%로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할 만하다.

<표 1>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의 수집 방법 및 주제별 현황(2024.08 기준)

구분	제작		구입		수증		계	
	자료수	비율(%)	자료수	비율(%)	자료수	비율(%)	자료수	비율(%)
총류	2,941	3.3	166	2.5	814	8.7	3,921	3.7
철학	5,298	6.0	533	8.0	403	4.3	6,234	5.9
종교	5,964	6.7	226	3.4	79	0.8	6,269	6.0
사회과학	24,418	27.5	1,329	19.8	1,846	19.7	27,593	26.3
자연과학	1,710	1.9	102	1.5	697	7.4	2,509	2.4
기술과학	5,806	6.5	417	6.2	547	5.8	6,770	6.5
예술	4,644	5.2	130	1.9	1,467	15.7	6,241	6.0
언어	3,140	3.5	536	8.0	749	8.0	4,425	4.2
문학	31,419	35.4	2,995	44.7	1,829	19.5	36,243	34.6
역사	3,441	3.9	262	3.9	937	10.0	4,640	4.4
합계	88,781	100.0	6,696	100.0	9,368	100.0	104,845	100.0

1) 2024년 8월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https://nld.go.kr/>), 2020~2024년 국립장애인도서관연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한 내부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분석함

2. 제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4년 총예산은 19,261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14,368백만 원이 대체자료 제작에 배정되어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5a). 이처럼 전년 대비 11.6% 증액된 제작비 편성은,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12가지 법정업무 가운데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한 대체자료의 누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일부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시기에 제작된 것이나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6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을 근거로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설치되고,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승격되면서 대체자료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소속기관으로 분리·독립한 이후부터 현재(2024년 8월)까지 제작된 대체자료는 전체 누적자료의 48.6%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 법정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양 기관의 업무 범위와 성격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누적 현황(2024.08 기준)

주제 제작연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비율%)
1990-1994	3	12	23	102	2	3	3	7	18	5	178(0.2)
1995-1999	10	96	34	719	17	61	16	35	204	57	1,249(1.4)
2000-2004	60	335	104	2,725	45	388	45	113	260	129	4,204(4.7)
2005-2009	26	131	48	2,258	27	148	20	25	72	40	2,795(3.1)
2010-2014	484	949	829	4,555	454	1,289	2,611	670	3,254	1,079	16,174(18.2)
2015-2019	838	1,459	1,473	4,467	311	1,327	810	1,034	8,460	815	20,994(23.6)
2020-2024	1,520	2,316	3,453	9,592	854	2,590	1,139	1,258	19,149	1,316	43,187(48.6)
계 (비율 %)	2,941 (3.3)	5,298 (6.0)	5,964 (6.7)	24,418 (27.5)	1,710 (1.9)	5,806 (6.5)	4,644 (5.2)	3,142 (3.5)	31,417 (35.4)	3,441 (3.9)	88,781 (100)

현재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직무·자기계발·교양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장서확충계획에 따른 대체자료 제작은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지식문화유산적 가치, 교육·학술적 활용성, 교양 및 정서 함양 기능, 생활정보 제공의 필요성, 잠재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한 대체자료는 자체(내부)

제작(8,138책, 39편)보다 위탁사업을 통한 외부 제작(65,608책, 3,880편)에 훨씬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가대체자료제작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인력, 제작시설, 기술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대체자료의 원자료 발행 연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발행 연도가 확인된 84,005건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발행된 자료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목록규칙」에서 복제물 또는 점자자료는 원자료가 아닌 자료 자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대체자료는 목자본(원자료)을 그대로 대체자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목록 데이터 역시 목자본과 동일하게 기술하되 제작정보를 부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2018). 따라서 2006년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출범 이후 대체자료 제작이 당해 연도 신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과거 발간된 소급자료의 제작은 매우 제한적이었거나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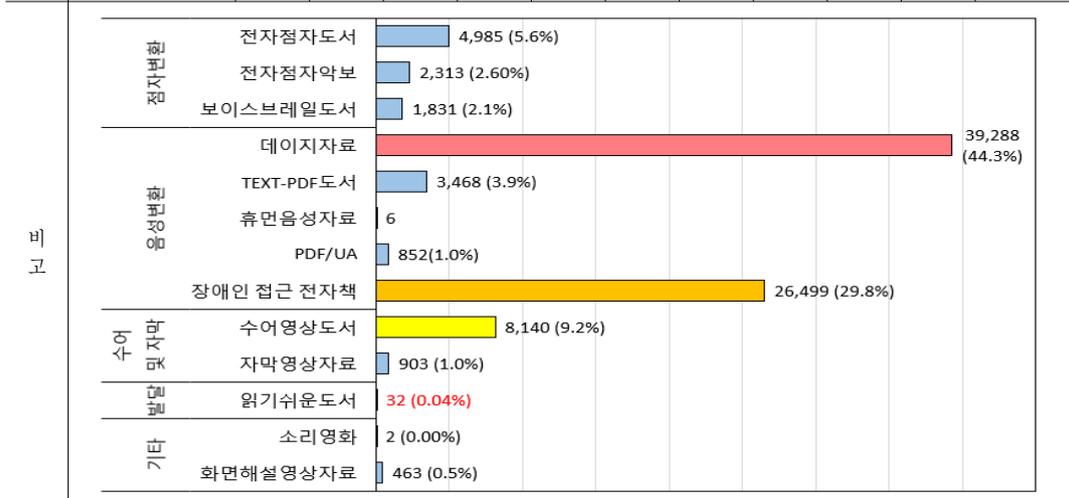
<표 3>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의 원자료 발행년 분포(2024.08 기준)

구분	자료수	비율(%)	구분	자료수	비율(%)	구분	자료수	비율(%)
1970 이전	127	0.3	2004	1,584	1.9	2015	3,675	4.4
1970-1974	23	0.3	2005	1,706	2.0	2016	4,624	5.5
1975-1979	148	0.3	2006	2,022	2.4	2017	4,629	5.5
1980-1984	118	0.4	2007	2,037	2.4	2018	5,313	6.3
1985-1989	257	0.5	2008	2,426	2.9	2019	6,026	7.2
1990-1994	858	0.8	2009	2,533	3.0	2020	5,317	6.3
1995-1999	3,145	2.9	2010	3,112	3.7	2021	5,311	6.3
2000	1,011	1.2	2011	3,191	3.8	2022	5,525	6.6
2001	1,199	1.4	2012	3,460	4.1	2023	3,958	4.7
2002	1,469	1.7	2013	3,455	4.1	2024	502	0.6
2003	1,649	2.0	2014	3,709	4.4	계	84,005	100

이어서 대체자료 유형(매체) 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데이지자료(4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EPUB)(29.8%), 수어영상도서(9.2%), 전자점자도서(5.6%) 순이다. 반면 전자점자악보, 보이스브레일도서, Text-PDF, PDF/UA, 자막영상자료, 읽기쉬운도서, 화명해설영상자료, 휴먼음성자료, 소리영화 등은 수집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2023년 등록장애인(2,641,896명)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43.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장애(16.4%), 발달장애(10.3%), 시각장애(9.4%) 순으로 나타난다.

〈표 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유형(매체)별 현황(2024.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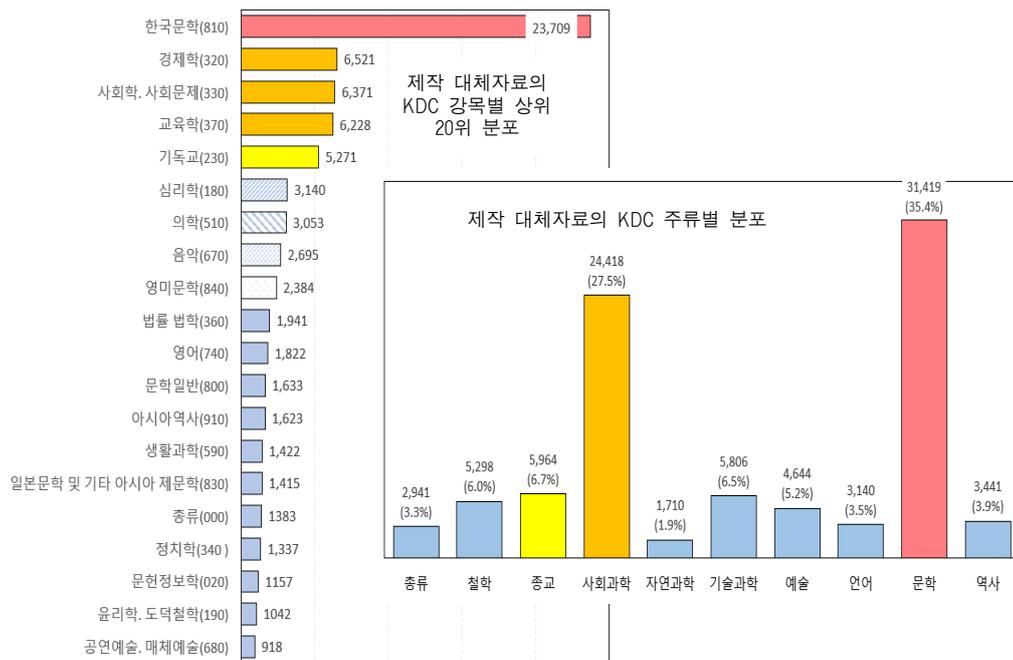
자료유형	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접자 · 변환	전자점자도서	80	431	123	2,461	82	376	74	420	787	151	4,985
	전자점자악보			5	4			2,301	1	1		2,312
	보이스브레일*	3	12	47	1,639	9	58	3	21	11	28	1,831
음성 · 변환	텍스트페이지	1,735	2,536	4,693	10,154	712	2,863	868	2,136	11,837	1,754	39,288
	TEXT-PDF	67	326	95	2,185	47	296	38	101	215	98	3,468
	휴먼음성자료		3							3		6
	PDF/UA	16			740	11	70	12	1	1	1	852
수어 · 자막	접근성전자책	468	1,352	955	5,448	538	1,459	639	195	14,674	771	26,499
	수어영상도서	424	617	46	1,478	291	552	162	261	3,873	436	8,140
기타	자막영상자료**	145	18		284	2	61	232		5	156	903
	읽기쉬운자료	3	3		4		5	1	1	12	3	32
	소리영화							2				2
	화면해설영상자료**				21	18	66	312	3		43	463



*2010년부터 제작 중단함/ ** 2015년 이후 제작 중단함

특히 최근 10년(2014~2023) 동안 청각장애인은 거의 두 배 증가하였고(국가통계포털, n.d.), 발달장애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2021~2023)간 대체자료 이용률은 시각장애인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인(19.9%), 지체장애인(1.3%), 뇌병변장애인(0.8%), 발달장애인(0.4%) 순으로 조사되었다(김신영, 박옥남, 2024, 139). 이처럼 대체자료의 유형과 이용률이 시각장애인에게 집중된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체자료 외에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대체적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의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또 다른 차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작자료의 상위 주제별(KDC 주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학이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사회과학(27.5%), 종교(6.7%), 기술과학(6.5%), 철학(6.0%), 예술(5.2%)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연과학(1.9%), 총류(3.3%), 언어(3.5%), 역사(3.9%)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주제 편중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하위 주제별(강목별)로 상위 20위 분포를 보면, 한국문학(810)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경제학(320), 사회학·사회문제(330), 교육학(370), 기독교(230), 심리학(180), 의학(510), 음악(670), 영미문학(840) 순이다. 그 외 법률·법학(360), 영어(740), 문학일반(800), 아시아 역사(910), 생활과학(59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 제문학(830), 총류(000), 정치학(340), 문헌정보학(020), 윤리학·도덕철학(190), 공연예술·매체예술(680) 등은 모두 2,000건 미만이다. 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별 자료의 폭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KDC 주제별(주류별·강목별 상위20위) 분포(2024.08 기준)

3. 수증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외부로부터 수증한 대체자료는 총 9,368건이다. 먼저 수증자료 유형별 분포는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휴먼음성자료가 5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수어영상도서(12.7%),

전자점자악보(11.3%), 전자점자도서(11.2%), 읽기쉬운자료(5.0%), 자막영상자료(0.6%), 접근성 전자책(0.5%) 순이다.

자료 유형별로 수증처를 살펴보면, 데이지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제작·기증한 수능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발행한 연속간행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휴먼음성자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해 장애인 관련 재단·협회, 오디오북 제작업체 등에서 주로 기증하였고, 수어영상도서는 박물관, 국립생태원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유관단체로부터 수증된 것이 많았다. 전자점자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작한 교과서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기증한 자료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자점자악보의 경우에는 해외 장애인 도서관 및 협회에서 제작·기증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수증처는 캐나다시각장애인협회, 중국점자도서관, 덴마크국립독서장애인도서관 등이다. 그 외 읽기쉬운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이어서 수증자료의 주제별 분포는 사회과학(8.7%), 문학(19.5%), 예술(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제작이 쉽지 않은 예술 주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해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전자점자악보(1,063건)의 영향이 크다. 그 외 수증자료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산하기관, 방송국, 장애인 관련 복지기관 등이 기관안내, 시설 이용 정보 제공, 장애인 대상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제작·배포한 자료이므로, 종교와 철학 주제를 제외하면 주제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증 대체자료의 유형별·주제별 분포(2024.08 기준)

구분	자료수	비율(%)	비고(주제별 분포)
휴먼음성자료	5,069	54.1	
수어영상도서	1,193	12.7	
전자점자악보	1,063	11.3	
전자점자도서	1,052	11.2	
데이지자료	470	5.0	
읽기쉬운자료	416	4.4	
자막영상자료	55	0.6	
접근성 전자책	47	0.5	
보이스브레일도서	2	0.02	
TEXT-PDF도서	1	0.01	
계	9,368	100	

4. 구입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구입한 대체자료는 2021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오디오북으로 한정되며, 이는 민간 출판·제작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오디오북은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서관 누리집에 가입한 '장애인회원'을 대상으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오디오북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문학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사회과학(19.8%), 철학(8.0%), 언어(8.0%), 기술과학(6.2%), 역사(3.9%), 종교(3.4%), 총류(2.5%), 예술(1.9%), 자연과학(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2024)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2023년 국내 출간 도서의 주제별 분포는 문학(21.82%), 사회과학(19.21%), 기술과학(12.42%), 종교(4.77%)의 순으로 많음에도, 오디오북은 문학(44.7%)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상업출판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배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입을 통한 대체자료 확보 방식만으로는 주제별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 국립장애인도서관 구입 대체자료(오디오북)의 주제별 분포(2024.08 기준)

구분	자료수	비율(%)	비고(주제별 분포)
총류	166	2.5	
철학	533	8.0	
종교	226	3.4	
사회과학	1,329	19.8	
자연과학	102	1.5	
기술과학	417	6.2	
예술	130	1.9	
언어	536	8.0	
문학	2,995	44.7	
역사	262	3.9	
계	6,696	100	

5. 시사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수집·제작 현황 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수집 방식은 제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수집의 84.7%가 제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4년 총예산의 약 75%가 대체자료 제작에 배정되어 있어, 법정업무 중 대체자료 제작 및 제작지원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분리·독립한 2020년 이후 제작한

대체자료는 전체 누적자료의 48.6%에 달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시사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가대체자료제작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제작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제작 자료의 주제별 분포는 문학, 사회과학, 종교, 기술과학, 철학, 예술 순이며, 자연과학, 종류, 언어, 역사 등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하위 주제별로는 한국문학(810)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제학(320), 사회학·사회문제(330), 교육학(370), 기독교(230), 심리학(180)이 뒤를 잇는다. 이외 대부분 하위 주제의 자료 수는 2,000건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주제별 편중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넷째, 대체자료 제작은 주로 신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급자료 제작은 극히 제한적이다. 향후에는 신간 대비 제작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소급자료 제작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대체자료 서비스가 일반 장애인 이용자뿐 아니라 장애인 연구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까지 포괄하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료 유형별로는 데이터자료와 접근성 전자책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영상자료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도서의 비중은 매우 낮다. 최근 10년(2014-2023) 동안 청각장애인이 거의 두 배 증가하고 발달장애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제작 전략이 요구된다.

여섯째, 수증자료의 하위 주제별 분포를 보면, 제작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음악(670), 영어(740), 자연과학(400), 생명과학(470) 분야는 수증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및 공공 부문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적극적인 수증처 발굴을 통한 수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입을 통해 확보한 대체자료는 오디오북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장애인 이용자와 연구자, 유관 기관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자료 라이선스 계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자료 및 교육·학술자료 중 대체자료가 아닌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장애유형별 선호 포맷으로의 지속적인 변환·제작이 요구된다.

Ⅲ. 전문가 면담

1. 면담 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교육 혹은 관련 연구 수행,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나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 건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과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교육, 장애인서비스, 대체자료 제작 실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의 경험과 관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현황 분석 결과와 소급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여 보다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표 7>과 같이 사회복지학(장애학) 전공 교수, 특수교육학과 교수, 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장애인특화 전문도서관(디지털도서관) 팀장, 장애인단체 정책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 문항은 <표 8>과 같이 주제 다양성, 유형(매체)별 다각화,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제작, 소급자료 제작 및 선정기준 등 4개 영역의 질문과 자유 의견 제시 항목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는 제한된 면담 시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면담은 개인정보 제공 및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2024년 11월 15일부터 약 2주간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설계된 문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되, 필요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실제 경험과 문제 인식, 개선 방향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표 7> 면담을 위한 전문가 선정

구분	분야	직위	경력
전문가 A	사회복지학/장애학(장애인 복지, 장애인 교육)	교수	12년
전문가 B	특수교육(장애인 교육)	교수	25년
전문가 C	장애인도서관(대체자료 제작,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장애인 유관 협회)	사무국장	9년
전문가 D	장애인특화 전문도서관(독서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운영)	팀장	9년
전문가 E	장애인 단체(장애인 교재 개발 연구위원,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장애인 유관 단체)	정책위원	15년

<표 8> 면담을 위한 질문지 항목 구성

항목	질문 내용
주제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대체자료의 주제별 현황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 (개정)장서개발정책에서 제시한 장애인 관련 주제(장애인 인권, 복지, 경제와 노동, 고용과 직업, 의료와 건강, 특수교육, 재활과학, 심리상담 및 치료, 정보격차해소 등)에 집중하는 정책과 관련한 의견
유형(매체)별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실적 및 대체자료 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 대체자료 유형별 현황과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학술·연구용 자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제작과 장애인 연구자 지원에 관한 의견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제작 필요성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제고에 관한 의견
소급자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급자료 제작 필요성과 선정기준 소급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목록(교육, 연구, 학술자료) 검토 의견

2. 면담 분석

가. 주제 다양성

대체자료의 주제 다양성 확보에 대한 전문가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주제별 분포가 문학과 사회과학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이용자는 독서·여가 활동뿐 아니라 실무·학업·연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체자료를 활용하므로, 특정 주제에 편중된 현행 제작·수집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제작된 대체자료의 절반 이상이 문학 분야에 집중된 점은 제작의 용이성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장애인 권익, 복지, 노동·고용, 특수교육, 재활과학, 심리상담, 의료·건강, 정보격차 등 장애 관련 분야의 대체자료 보강은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장애인이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주제군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현행 선정 방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전문가 A, E). 향후 제작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자연과학, 언어, 역사 분야 등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제에 대한 우선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전문가 C). 또한 장애 이용자가 독서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제로 취미, 재테크, 요리·식생활 등 실용적 생활정보 분야를 별도의 주제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 제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가 D).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주제 편중 완화, 장애인의 실제 생활·사회활동을 반영한 주제 재구조화, 그리고 사회·학술·실용 영역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중장기적 주제 다양화 전략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대체자료 주제 다양성은 장애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 반영되고, 연구와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판되는 자료에 비해 대체자료 수가 매우 적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장애 관련 주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추후 주제별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A)

“첨부된 소규모 대체자료 기초목록을 보면 상당수가 사회과학분야 주제입니다. ... (중략)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에서 가장 적은 분야인 자연과학, 총류, 언어, 역사에 대한 목록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C)

나. 유형(매체)별 다각화

대체자료 유형에 관한 전문가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전문가 B, C, E).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등록장애인 규모 면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수어영상도서 등 청각장애인용 자료 제작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전문가 A, D).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도서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읽기쉬운' 자료에 대한 개념 정의, 표준 제작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제작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전문가 E). 아울러 매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자료와 접근성 전자책 등 디지털형 대체자료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점자자료 제작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전문가 E). 이와 함께 시각과 청각 기능을 동시에 상실한 중복장애인(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료 지원 필요성(전문가 D), 다양한 유형(매체)의 대체자료 제작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원본 파일 확보의 중요성, 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 장치 마련, 민간 및 장애인도서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전문가 C).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장애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도 다양한 매체 유형을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일반 목자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고 오직 대체자료로만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자료의 제작 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C)

“정보접근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은 합당하나, 향후 발달장애인이거나 경계성인을 위한 쉬운도서 등의 대체자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전문가 B)

“청각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료 제작비율은 9.2%에 불과합니다. 수어영상도서는 청각장애인의 삶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수어영상도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 D)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기쉬운 공보나 선거자료 제작 등을 통해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작업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읽기쉬운책 제작이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중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읽기쉬운'에 대한 개념이나 제작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읽기쉬운'의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전문가 E)

다. 학술·연구용 자료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제작 확대에 대한 전문가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학술·연구용 대체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제작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장애인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여겨졌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비해 연구용 대체자료의 제공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학술·연구용 대체자료의 확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연구 분야 진출, 직업군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전문가 C).

그러나 학술·연구용 자료는 도형, 표, 수식, 그림 등 구조적 난도가 높은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지식과 제작 경험이 필수적이며, 제작 단가도 일반도서에 비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나 개별 장애인도서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국가도서관 차원의 책임 있는 제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전문가 D).

또한 장애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관점보다, 실제 학술·연구용 대체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연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전문가 A). 대체자료 제작이 결국 예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연구용 자료를 우선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는 장애인 연구자의 직접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와 필요성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고비용이 소요되는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제작의 명분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 E).

“제작 여력이 된다면 장애인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학 분야가 아닌 법학, 지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시각장애인 연구자들이 진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A)

“대체자료의 주제 다양성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연구분야 확대, 직업군 확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장애인들의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진출로 대체자료 제작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계라고 느껴던 분야들도 장애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체자료는 부족합니다. …(중략) 이공계열로의 진출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열 자료는 전문지식과 대체자료 제작 경험이 풍부해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C)

“학술 및 연구용 대체자료는 일반 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 요구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도형, 표, 수식, 그림 등을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를 만드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일반도서 대비 제작단가도 높습니다. 이러한 전문자료 제작은 국가 및 공공도서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일 겁니다.”(전문가 D)

라. 소급자료 제작

대체자료 소급제작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로 생산된 기초목록(장애 또는 장애인 관련 교육·학술·연구 자료)을 활용하여 적절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급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전문가 B, C, D). 다만 소급자료의 경우 개정판 출간이나 후속연구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매체)별 제작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특정 유형은 기술적·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제작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문가 C).

또한 연구에서 제안한 소급자료 선정기준인 ①주제 및 유형, ②저자 및 발행기관, ③발행년(최신성), ④비중복성, ⑤잠재적 이용가능성 가운데 ‘잠재적 이용가능성’은 판단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술·연구용 대체자료 확충 논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장애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요구·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이라고 제안하였다(전문가 A, E).

아울러 소급자료 선정기준에 ‘디지털 접근 가능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향후 대체자료의 제공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기 용이한지, 디지털파일 제작 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 D).

“선정기준(주제 및 유형, 저자 및 발행기관, 최신성, 비중복성, 잠재적 이용가능성)은 다양한 연구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 정의된 선정기준에 의해 대체자료 제작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자료의 ‘디지털 접근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체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가 OCR 등으로 디지털화에 용이한 자료인지, 그리고 디지털파일로 전환시 품질 유지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 D)

3. 면담 결과

반구조화된 면담의 특성상,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 전문가가 주어진 질문지를 중심으로 하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종료 후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핵심 내용을 재정리·요약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를 <표 9>와 같이 체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수집·제작 방향성을 네 가지 범주 즉, 주제 다양성, 유형(매체)별 다각화, 학술·연구용 자료 확충, 소급자료 제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범주에서는 문학류 편중, 장애 관련 주제의 집중, 실용서 확대 필요성, 시각·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자료 보완, 장애인 연구자 지원의 중요성, 제작 난이도와 비용 문제, 장애인의 사회 진출 확대, 기초목록의 활용, 선정기준의 타당성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9> 전문가 면담 결과

범주	키워드	내용	문제점	개선안
주제 다양성	문학류 편중	문학류 외 주제 다양성 확보 필요(전문가 전원)	출판량 대비 주제별 대체자료 부족(전문가 A)	주제별 대체자료 점진적 확대(전문가 A)
	장애 관련 주제	단기적으로 장애 관련 주제 우선 개발(전문가 A)	장애인의 진출 영역 확장에 따른 대체자료 요구 미충족(전문가 A&E)	자연과학, 언어, 역사 등 빈약한 주제류 우선 보강(전문가 C)
	실용서	분류표(KDC) 주류별 수집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학문적 성과를 표현하기에 훌륭한 방법이지만 장애인 이용자에게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전문가 D)	독자 스스로 독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접근이 자칫 소홀히 할 수 있음(전문가 D)	실용서를 별도 주제로 세분(전문가 D)
유형(매체)별 다각화	시각장애인용 자료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장애유형이며, 대체자료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임(전문가 C, E)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한계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자료의 제작 비율을 정해야 함(전문가 C)	출판량 대비 신간 데이터자료, 접근성 전자책 제작 확대(전문가 C)
	청각장애인용 자료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가 소외되는 현상(전문가 A, D)	수어영상도서는 청각장애인의 삶에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매우 부족(전문가 D)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자료 등 제작 확대(전문가 D)
	발달장애인용 자료	읽기쉬운책 제작이 32건으로 전체 0.04%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사업을 되돌아봐야 함(전문가 E) 발달장애인 경계성인을 위한 쉬운도서 등의 대체자료 확보 필요(전문가 B)	'읽기쉬운'에 대한 개념이나 제작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음(전문가 E)	'읽기쉬운'에 대한 연구 확대 및 제작지원(전문가 E)
학술연구용 자료	장애인 연구자 지원	장애 연구의 발전과 정책 개선 정보접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전문가 D)	학술연구용 자료 제작은 민간 장애인 도서관에서 제작하기 어려움(전문가 D)	제작 난이도가 높은 자료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우선순위를 두고 제작(전문가 C, D)
	제작 난이도	자연과학 분야 등 전문지식과 대체자료 제작 경험이 풍부해야 제작 가능한 주제 부분(전문가 C, D)		
	장애인 사회진출	장애 관련 학술연구 지원보다는 장애인 연구자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야 함(전문가 A)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장애인 연구자 지원 필요(전문가 E)	제작 명분과 선호도 높은 자료 선정의 어려움(전문가 E)	장애인 연구자 대상 선호도 조사 정례화(전문가 E)
소급자료 제작	기초목록	인문 사회와 장애 관련으로 차증된 점을 고려할 때, 경영·경제, 공학 분야 등도 점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에는 제시할 필요가 있음(전문가 B)	소급자료 기초목록(주제 편향성) 수집의 한계(전문가 전원)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인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전문가 B, C)
	선정기준	(1) 주제 및 유형 (2) 저자 및 발행기관 (3) 발행년(최신성), (4) 비중복성 (5)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판단기준 보완 필요성 및 해결책 마련(전문가 E)	디지털 접근 가능성 고려(전문가 D)

IV. 연구 결과

1. 제작·수집 목표와 수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수집 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간자료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되, 현재의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소급자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선호하는 주제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세계 출판도서 중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작되는 대체자료 비율은 7~10% 수준이다(WIPO, 2016). 주요 국가의 대체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연간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이 약 30%(CELIA, n.d.)로 가장 높고, 캐나다는 약 10%(McDiarmid, 2023), 그 외 주요 선진국 역시 대부분 10% 안팎으로 보고되었다(윤희운, 2020).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신간도서 출판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이 5.09%에 불과하다(장보성, 2022).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해 연간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을 2023년 21%(1.2만 건)에서 2028년 30%(1.8만 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42). 그러나 이 수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발행도서 기준과 대체자료 유형별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된 추정치여서, 실제로는 신간자료의 제작·수집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습·연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의 조직·인력·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를 통해 대체자료 제작 및 제작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자료 제작·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면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대체자료 제작 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제 다양성 확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6년부터 독서진흥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가 선호하는 도서 유형, 전자책·오디오북 이용 실태, 대체자료 이용 현황 등을 통해 대주제(주류)별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부 주제나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출판 도서는 주제별로 문학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종교 순으로 많이 발간되고 있으며(대한출판문화협회, 2024), 장애인의 연령대별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은 동화(그림책) > 위인전·인물 > 시(동시) > 과학·기술·컴퓨터 순, 중·고교생은 문학(동시, 소설, 수필) > 동화 > 취미·오락·여행·건강 > 위인전·인물 순이며, 성인은 문학(시, 소설, 수필) > 철학·사상·종교 > 취미·오락·여행·건강 순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4b). 이러한 출판 경향과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하면,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제별 대체자료가 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일반 대중자료에 해당하며, 교육·학술·연구 목적의 자료 제작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총괄하는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산하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rint Disabled(NLS)는 이용자 요구와 출판 동향, 보유 자료 분석, 자문그룹이 참여하는 공개 논의 과정을 통해 제작 목록을 선정한다. 특히 장서개발자문그룹(Collec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은 장애인도서관 사서, 청소년 대표, 이용자 대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와 요구를 논의해 개발 목록을 확정한다. 이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NLS 워크숍에서 자료 선정과 목록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되는 자료의 품질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2022).

국립장애인도서관도 NLS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학 교수, 출판·제작사 관계자, 학문 분야별 전문가, 장애인 이용자 대표, 장애인 가족 또는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대체자료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복지, 경제와 노동, 고용과 직업, 의료와 건강, 특수교육, 재활과학, 편의증진, 인식개선, 일자리 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실용적·실천적 주제의 자료 확보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이 여러 사회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유형(매체)별 다각화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비율이 5~7%에 머물렀던 캐나다는 2019년 「캐나다 접근성법(Accessible Canada Act)」 시행 이후 2040년까지 '장벽 없는 캐나다'를 목표로 도서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대체자료를 마련하며, 직원의 접근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자료 접근성 자체의 확대에 있기에 출판사, 전자책 플랫폼, 콘텐츠 가공업체 등에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출판·제작할 의무'가 부여되었고, 그 결과 도서관이 다양한 대체자료를 더욱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캐나다의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은 최근 10%대로 증가하였다. 2023년

캐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69.5%가 대체자료 이용 과정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장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장벽은 비용(29.7%), 원하는 대체자료 형식의 부재(28.3%), 정보 검색의 어려움(22.9%) 순이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대체자료 형식은 큰글자책(63.1%), 접근성 전자책·PDF/UA(36.0%), 오디오북(28.2%), 음성도서·자막영상자료(12.7%), 점자책·촉각책(4.4%) 순으로 조사되었다(McDiarmid, 2023).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이 선호하는 대체자료는 데이지자료, 수어영상도서, 전자점자자료·악보, 접근성 전자책 순으로 나타났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4b). 국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 능력 비율은 9.6%에 불과하며(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2023, 17),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체자료 선호가 데이지, 전자점자, 접근성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 자료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서장애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은 필요한 자료가 대체자료로 제작되지 않거나, 원하는 형식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금까지 제작한 대체자료의 75%는 데이지자료와 접근성 전자책이다. 이로 인해 최근 3년(2021~2023) 동안 대체자료 이용자 중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4a). 그러나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통적 도서관 자료 이용에도 상당한 인지적 부담이 따른다(이윤정, 김유승, 2025, 44). 청각장애 성인의 평균 문해력 점수는 100점 기준 26.93점으로, 비장애 성인의 63.6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비문해율도 크게 높다(이준우, 김연신, 2011, 178). 최근 5년(2020~2024) 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현황은 <표 10>과 같으며(국립장애인도서관, 2025a), 이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건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청각장애인의 낮은 문해율과 현재의 제작 현황을 고려하면 수어영상도서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분석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비율과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도,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어영상도서 제작 비율은 9.2%, 읽기쉬운책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대체자료 제작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표 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현황(2020-2024)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한국수어영상도서	완역(책)	128	138	102	51	61	480
	요약(편)	0	288	198	741	819	2,046

한편,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제작이 본격화된 시점은 「읽기쉬운책 제작지침」 제정 이후이다. 이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피치마켓’(2015년 설립)과 서울시읽기쉬운자료

개발센터 ‘알다’(2018년 설립)가 청소년 필독서를 읽기쉬운책으로 개발·보급하면서 관련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발달장애인이 독서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장벽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식의 도서 자체’이다(이정은, 2015). 일반도서로는 독서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과 생활연령에 적합한 도서를 접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며, 교사와 부모 역시 독서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이정은 외, 2013). 지적장애인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대체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시각장애학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김화수 외, 2019).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접근성 전자책과 PDF/UA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서비스 형평성을 고려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도서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의 제작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고령 장애인과 학습자는 여전히 점자도서와 아날로그 기반 자료를 선호하고, 디지털 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당분간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 대체자료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의 경우 앱·웹·뷰어의 접근성 미비, 비용 부담, 멀티미디어형 대체자료 확대에 인한 장애인의 데이터 환경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술·연구용 자료 확충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 ‘국가 장애인정책도서관’, ‘전국 도서관 및 교육·학술기관을 위한 장애인서비스의 구심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대표하는 창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개정 장서개발정책에서 정의한 장애인자료의 범주를 장애인 대체자료, 장애인을 위한 일반·대중자료, 장애인 및 장애 관련 교육학술자료로 확대 정의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5b, 19).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학술서는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NDL)이 점자, 데이지자료, 접근성 전자책, 플레인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제작하고, 대중서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제작하여 이를 NDL에 제공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는다. 특히 NDL이 발표한 「국립국회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획(2021-2024)」에서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학술문헌의 대체자료 제작을 NDL이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제작 형식이 데이지자료와 접근성 전자책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国立国会図書館, 2021).

전문가 면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연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 등 제작 난이도가 높은 주제의 대체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체자료 제작 및 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나, 공급체계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조사에 따라 민간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일부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난이도 높은 주제의 자료 제작을 민간이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학술·연구용 자료 제작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장애인이 대체자료 이용 과정에서 제기하는 불만족 요인 중 '대체자료의 품질'에 대한 문제(오선경, 2017)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검수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술·연구용 자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소급자료 제작 및 선정기준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외에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향후 제작할 소급용 대체자료는 개정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그동안 문학류 중심으로 편향되었던 제작 기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이용 목적, 그리고 현재적·잠재적 이용자 집단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급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주력해야 하지만, 자료예산과 담당 인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기초조사 목록에서 확인된 미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재 장애인 및 이해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영구적 보존을 전제로 대체 자료를 변환·제작해야 한다. 매체 변환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하는 일반(대중)자료 및 교육 학술자료 중 대체자료가 아닌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선호 포맷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급자료의 주제는 국내외 학술도서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 복지, 경제와 노동, 고용과 직업, 의료와 건강, 특수교육, 재활과학, 심리상담 및 치료, 정보격차 등 핵심 영역에 방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이해집단을 위한 교육학술정보는 매체나 자료유형을 불문하고 '장애' 관련 주요 키워드(인권, 복지·의료, 특수교육, 고용·직업 등)가 포함된

국내외 자료를 우선적으로 대체자료로 변환·제작해야 한다.

셋째, 생산주체별 수집은 국내 교육·행정·연구 기관 및 단체가 생산한 교육학술자료, 주요 국제기구·단체가 홈페이지나 별도 웹사이트에 공개한 디지털 회색문헌, 그리고 라이선스형 전자자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고가 패키지형 전자자료는 장애 관련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 제한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주요 대학도서관, 출연기관 등과 중복을 피하여 제작해야 한다.

넷째, 대체자료 유형(매체)별 제작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을 표적 집단으로 삼아 유형별 종수와 분량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 관련 이해집단의 경우 교육연구기관, 공공·행정기관, 대표 민간단체 순으로 우선 적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체자료를 제작한다. 특히 장애 관련 교육연구기관과 장애인 법제·인권·심리·복지·의료·고용·정보격차 등에 관여하는 행정·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민사회를 폭넓게 포괄하되, 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선정하여 대체자료로 변환·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생산된 교재, 학술자료(Web DB 포함), 회색문헌 및 미소장 소급자료를 포함한 교육학술자료를 적극적·전략적으로 수집하여 대체자료로 변환·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급용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선정 기준을 <표 11>과 같이 제안한다.

<표 11> 국립장애인도서관 소급용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선정기준

선정기준	내 용
주제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C와 DDC 분류표를 참고하여 장애 및 장애인과 관련성이 높은 주류와 강목 위주의 분류기호를 추출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복지, 경제와 노동, 고용과 직업, 의료와 건강, 특수교육, 재활과학, 편의증진, 인식개선, 일자리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관련 정책연구 등 주제 다양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는 장애 관련 교육·연구 지원 및 장애인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도서, 학술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자료 유형별 균형 확보
저자 및 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출연기관, 관련 학회 및 협회, 연구소, 장애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등에서 발행한 자료 우선 선정(장애 관련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업출판사 출판물이 많지 않음)
최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하면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자료를 우선 선별하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소급자료 비중 확대를 고려(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최신성 기준은 예외를 적용함)
비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민간에서 제작하기 힘든 학술서, 학위논문, 회색문헌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중복제작을 피함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위한 대체자료 매체별 제작은 허용
잠재적 이용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및 장애인 연구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재적·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자료 •장애인의 학습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참고도서

V. 제언 및 결론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위적·조직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체자료의 수집과 제작에 주력하며 장애인의 정보복지 및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현 시점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독립청사 확보와 더불어 국내외 장애인자료의 전략적 수집이다. 이는 향후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애인자료의 포괄적 수집·보존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본질적 정체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전략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 전략으로 장애유형별 대체자료(점자, 음성, 영상자료, 장애인 접근 디지털파일 등)의 제작 확대 및 품질 제고,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앞서 분석한 매체별·주제별 제작 및 수집 현황,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대체자료 수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수집은 궁극적으로 국가대체자료개발센터 기능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 역량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체자료 제작·수집의 목표는 비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모든 유형별·주제별 자료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체성과 범국가적 책임, 법정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유형·주제·생산주체를 불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습·연구지원까지 포함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신간자료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을 목표로 제작·수집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소급자료의 경우에는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집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주제별 제작·수집은 출판동향, 장애인 선호도, 장애인도서관의 장서 구성 순위를 종합하여 성인의 경우 문학, 사회과학, 철학·종교,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문학류 편중은 지양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삶과 연계되거나 장애인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균형 있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체자료 제작은 자체 제작과 위탁 제작을 병행하되, 위탁의 경우 자료 품질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체 및 협력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상업출판사의 디지털파일 제공을 적극 독려하고, 국내외 정부 부처·포털·대학·연구기관, 해외 주요 국제기구·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책문서·조사연구보고서·박사학위논문·이슈페이퍼 등 디지털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요구된다. 필요시 매체별 대체자료로의 변환·제작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자료유형 및 매체는 인쇄자료(도서, 잡지, 신문, 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단매물(악보, 지도, 사진), 팜플릿, 전자자료, 디지털 회색문헌 등을 포괄하여 제작·수집해야 한다. 아날로그형 대체자료가 점차 디지털형 대체자료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용률 역시 데이지자료, 수어 영상도서, 전자점자자료·악보, 접근성 전자책 순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접근성 전자책과 PDF/UA의 제작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집단(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수집은 명목상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되, 주요 장애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을 표적집단으로 설정하여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주력해왔으나, 향후 법적 지위 격상, 청각·발달장애인의 증가,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요컨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인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출판 시장의 주제별 생산 비율과 장애인의 매체·주제별 선호도를 반영하면서, 디지털파일 제출 요청, 구입, 수증, 교환, 기탁, 디지털 다운로드 등 다양한 수집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체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구, 임경원 (2017).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전략 및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83-301.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83>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1). 2020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 2021 국립 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3). 2022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4a). 2023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4b). 2024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5a). 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5b).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지침.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2018).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정리 매뉴얼.
- 김신영, 박옥남 (2023).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123-150. <https://doi.org/10.16981/kliss.54.4.202312.123>

- 김신영, 박옥남 (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연구.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
- 김영일 (2020).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 시각장애연구, 36(4), 261-281.
<https://doi.org/10.35154/kjvi.2020.36.4.261>
- 김화수, 이지우, 김소정, 김한얼, 신수연, 이아영 (2019). 이모티콘 이해 및 표현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연구, 21(2), 1-24.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24). 2023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년불명).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백록담, 김유승 (201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연구: 정책 및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135-15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1.135>
- 서혜란, 강은영 (2015).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5-3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4.005>
- 오선경 (2017). 국내 시각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215>
- 이윤정, 김유승 (2025).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25-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3.57333>
- 이정은 (2015). 문해력이 낮은 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체도서 개발 연구. 학습장애연구, 12(2), 41-71.
- 이정은, 서선진, 박현욱 (2013).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자폐성장애연구, 13(1), 21-46.
- 이준우, 김연신 (2011).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정보격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4), 159-182.
- 윤희윤 (2020). 대륙별 국가주도형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주체와 내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25.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
- 윤희윤, 김신영 (2013).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
-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2023).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 장보성 (2022).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장서 평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9(3), 51-67.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051>
- 통계청 (발행년불명).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황신애, 이승민 (2020).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191-2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3.191>
- 国立国会図書館 (2021). 障害者サービス実施計画 2021-2024. 東京: 国立国会図書館.
출처: https://www.ndl.go.jp/jp/support/service_plan2021_2024.pdf

- CELIA [n.d.] Welcome to Accessibility Library Celia!. Available:
<https://www.celia.fi/eng/books-and-collections/>
- IFLA (2024). Guidelines for Making Librari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gue: IFLA Equitable and Accessible Library Services Section.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rest/api/core/bitstreams/5fc79fcf-94b1-442b-b43d-09f7f322f4f1/content>
- Library of Congress (2022). Collection Building Policy. Available:
<https://www.loc.gov/nlsabout/organization/standards-guidelines/collection-building-policy/>
- McDiarmid, C. (2023). Print material accessibility in Canada, 2023. Canada Statistics. Available:
<https://www150.statcan.gc.ca/n1/pub/89-654-x/89-654-x2023003-eng.htm>
- WIPO (2016). The Marrakesh Treaty: Helping to end the Global Book Famine. Geneva: WIPO.
- Yoon, H. Y. & Kim, S. Y. (2011).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lternative format material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lib Proceedings*, 63(4), 380-398.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Rokdam & Kim, Youseung (2016). A study on the materials at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135-15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1.135>
- Hwang, Shin-Ae & Lee, Seungmin (2020).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visually impaired using reading aids devic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3), 191-2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3.191>
- Jang, Bo Seong (2022). An analysis of alternative materials collection evaluation using a national alternative materials union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3), 51-67.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051>
- Kang, Seonggoo & Lim, Kyung-won (2017). A study on the change of production strategy and environment for alternative material for person with special nee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83-301.

-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83>
- Kim, Sin-Young & Park, Ok Nam (2023). A study on the collection strategies of library materials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123-150.
<https://dx.doi.org/10.16981/kliss.54.4.202312.123>
- Kim, Sin-Young & Park, Ok Nam (2024).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Kim, Young-il (2020). Afterthoughts about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librar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6(4), 261-281.
<https://dx.doi.org/10.35154/kjvi.2020.36.4.261>
- Kim, Wha-Soo, Lee, Ji-Woo, Kim, So-Jung, Kim, Han-Eul, Sin, Su-Eun, & Lee, A-Young (2019). A study on emoticon understanding and expressive 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1(2), 1-24.
- Korea Digital Accessibility Agency (2023). 2023 Study on Improving Accessibility for Disabled Users in Private E-Book Viewers.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4). 2023 Korean Publishing Yearbook. Seoul: The Association.
- Lee, Jueng Eun (2015). Developing alternative book, "easy-to-read book" for teenagers with low literacy.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2(2), 41-71.
- Lee, Jueng Eun, Seo, Seon Jin, & Park, Hyun Ok (2013). The experiences of and needs o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and/or autism in the view of their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3(1), 21-46.
- Lee, Jun Woo & Kim, Yeon Shin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on the occurrence of information gap—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terac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4), 159-182.
- Lee, Yun-jeong & Kim, Youseung (2025).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25-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3.57333>
- Libraries Act. Act No. 21090.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1). Annual Report 2020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2). Annual Report 2021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2023). Annual Report 2022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4a). Annual Report 2023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4b). 2024 Survey on Reading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5a). Annual Report 2024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5b).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Materials Development Division (2018). Manual for Organizing Alternative Materials for Libraries for the Disabled.
- National Diet Library (2021). Disability Service Implementation Plan 2021-2024. Tokyo: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ndl.go.jp/jp/support/service_plan2021_2024.pdf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s.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https://kosis.kr/index/index.do>
- Oh, Seon Kyung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the production state of alternative materials of special libraries for the visually disabl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215>
- Suh, Hye Ran & Kang, Eun Yeong (2015).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4), 5-3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4.005>
- Yoon, Hee-Yoon (2020). A study on the main body and content of state-led library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ntin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1-25.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
- Yoon, Hee-Yoon & Kim, Sinyoung (2013). A Study on Esta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Seoul: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